



'네모의 세상'

만약 모두를 위해 설계된 세상에서 당신만이 혼자 소외된다면 어떨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없다. 고정관념이라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면 어떤 것이든 새롭게 볼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23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우수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영국의 대릴 앤 코의 '네모의 세상'은 소외되는 것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국내 대표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축제인 2023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우수공연 2편을 선보인다. ACC 어린이극장에서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번 공연은 ACC재단과 아시테지 코리아, 노원 어린이극장, 아세안문화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 연계 행사로 기획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축제를 지역의 어린이 관객들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공연 2편 ACC재단, 29일~8월6일 선보여 어린이 시각에 맞춰 작품 구성 말 대신 음악·표정 등으로 이야기

과 함께 누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네모의 세상'은(29~30일) 세 친구들이 정사각형 세계의 규칙을 새로 재정의하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모티브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유쾌하게 풀어간다. 특히 이 작품은 말 대신 음악, 표정과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특징이 있다. 오브제들의 움직임과 이색적인 요소를 매개로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아이들을 초대

할 예정이다.

태국 타 렌트 쇼 씨어터의 '레이디 앤 젠틀 마임'(8월 5-6일)은 부부 관계를 통해 우리 주변의 친구나 부모,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판토파임을 테마로 두 명의 배우가 펼치는 슬랩스틱, 오브제극까지 웃음과 감동, 경악 등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에서 공연되는 작품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정관념의 문제나, 부부의 관계 등을 어린이의 시각에 맞춰 구성된 작품들"이라며 "웃음과 감동 등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1회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공존을 주제로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다.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현아 시인·정란희 동화작가 '독자와 만남'

다음달 16일·19일 기억책방서 책담회...시 낭독 등

기억책방(동구 백서로 179, 2층)은 유현아 시인과 정란희 동화작가를 초대해 8월 책담회(북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책담회는 2023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며 '연대와 치유의 책담회'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8월 16일(오후 6시)에는 '슬픔은 겨우 손톱만큼의 조각'(장비)을 펴낸 유현아 시인을 초청해 시 세계를 엿보고 육성 낭독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8월 19일(오후 6시)에는 정란희 동화작가가 '동화작가가 되는 법-어린이문학을 통해 본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책담회는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참가



유현아 시인 정란희 동화작가

비 무료, 선착순. 한편 기억책방 송기역대표는 "이번 8월 책담회는 유현아 시인과 정란희 동화작가를 초청해 시와 동화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무더운 여름이지만 문화와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편으르써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진도 유적지 탐방하고 전통문화 체험

민요·천연염색 배우기 등...국립남도국악원 다음달 10일까지 모집

남도 문화자원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가득 담아내는 행사가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 이하 국악원)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여름 특별 문화체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착순 60명.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시민들에게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동안 숙박하며 '민요 배우기', '강강술래 배우기', '천연염색' 등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국악

원 홈페이지 참조.

아울러 진도 문화유적지 탐방도 예정돼 있다. 아름다운 낙조 전망지로 유명한 '세방낙조',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 소치 허련이 그림을 그리던 장소 '운림산방' 등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국악원에서 진행되는 토요상설공연과 연계해 '한여름의 파노라마'도 감상하게 된다. 참가비는 숙박 시설마다 상이. 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 교회·신앙인의 가치관 대전환

호남영성연구원, 내일 화순서 창립 학술세미나

호남의 영성을 한국교회 상황에 접목해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새롭게 전환하는데 목표를 둔 호남영성연구원이 새롭게 창립된다.

서순복 조선대 법대 교수가 이사장을 강성열 호신대 신학과 교수가 원장을 맡은 호남영성연구원은 우리 삶의 근원인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꾸려졌다. 더불어 호남 영성의 맥을 이루는 주요 선각자들의 생애와 사상, 가르침을 깊이 모색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호남영성연구원은 창립을 기념하는 제1회 학술세미나를 오는 27일 오후 2시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펀터 만연홀에서 개최한다.

로고스 문화교회 김중현 목사(광주 국제영아마을 이사장)사회로 '호남 영성의 맥을 찾아서-이세종과 이현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의 가치관을 전환해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

됐다.

화순 출신인 이세종(1879~1944) 선생은 구한말 기독교 토착 신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머슴살이로 부를 이룬 후 한금을 깨쳐 40살에 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모든 재산을 구휼하는 데 내놓았다. 또한 금욕·금욕·금식의 절제된 삶을 토대로 호남의 대표적 영성가들을 길러내 '화순의 성자'로 불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용범 교수(호신대)가 '이세종의 영성과 삶에 나타난 사회생태학적 실천'을, 서순복 교수가 '이공(이세종)과 프란치스코의 영성 비교 연구'를 발표한다.

이어 차중순 박사(전 호신대 총장)가 '이현필 그리고 동광원-귀일환'을, 심중식 소장(귀일사상연구소)이 '다석과 이현필의 귀일생명신학을 찾아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중합논평은 강성열 교수(호신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현장탐방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BTS 정국 '세븐' 빌보드 핫 100 1위 쾌거

지민 이어 두번째 ...K팝 솔로 최초 글로벌 차트 3개 석권

그를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사진)이 25일 공식 솔로 데뷔곡 '세븐'(Seven)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더 위로 가지"고 소감을 밝혔다.

정국은 자신의 '핫 100' 1위 진입이 공개된 이후 이날 오전 4시 16분께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이같이 적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매일 '세븐'을 사랑해 주신 전 세계 모든 아미(방탄소년단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정국의 '세븐'은 K팝 솔로 가수 사상 같은 팀 멤버 지민에 이어 두번째로 '핫 100' 1위 진입을 달성했다. 지난주 후반 들어 컨트리 가수 제이슨 알딘의 '트라이 댓 인 어 스몰 타운'(Try That In A Small Town)이 음원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무섭

게 추격했지만, 스트리밍 호조에 힘입어 정상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세븐' 작업 과정과 정국의 솔로 프로젝트 전반에 깊이 관여한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최고경영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역사상 한 주에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Biggest streaming song in one week in history!)라며 축하했다.

정국의 '세븐'은 특히 '핫 100' 외에도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K팝 솔로 가수가 이 세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한 것은 정국이 최초다.

같은 날 '세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도 1억건을 넘겼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10일 13시간 8분 만인 이날 오전 2시 8분께 1억뷰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전집

시조 선운사 동백꽃
동시 동근 해를 공굴리며
선진 전원범 문학선 99

시조 선운사 동백꽃
동시 동근 해를 공굴리며
선진 전원범 문학선 99

시조 선운사 동백꽃
동시 동근 해를 공굴리며
선진 전원범 문학선 99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